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동네 목사님 -기형도-

(요즘 한국에선 각 교단마다 총회가 열려 쟁쟁한 목사님들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감히 저같은 조무래기는 근처에도 못 갈 유명한 목사님들....그러나 어느 시인이 본 이름없는 목사님이 더 그리운 것은 오르지 못할 나무를 대신하는 핑계는 아닌 듯 싶습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홀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을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쑤군거렸다.
학생회 소년들과 목사관 뒷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정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그뎌 그랬지▶ 하드 통

동네 가게 앞에 여름이면 어김없이 자리를 차지하던 길다란 통, 각종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드통이 그 한 통에 뒤섞여 들어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찾아 이것 저것 한참 뒤져 밑에서 찾아내 집어 들었습니다. 뚜껑은 고무로 된 검정색이 많았습니다. 종류별로 진열하는 오늘의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지만 손을 넣었을 때 시원했던 그 추억이 아직 손 끝에 남아있어 그 때가 더욱 그리웁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건강한가정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5권 41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10월 12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자 신 감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은 한적한 시골 교회로 전교인이 수련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교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로여서 겨우 차 한 대
지나갈 정도로 좁았고, 까딱 잘못하면 논으로 빠져버릴 것
같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된 왕초보 전도사님이 곡예운전을 하다가
그만 옆 수렁으로 주루루루 미끄러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앞서가던 교회버스에서 청년들 몇 명이 달려오더니 다들 큰일났다는 표정을 지으
며 차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였지만 차는 더욱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차에서 남선교회원 몇 명이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야! 프라이드도 차냐?(PRIDE=HONDA CITY와 비슷)

다들 달라 붙어! 번쩍 들어 올려놓자!"

그러더니 정말로 몇 명이서 차를 들어 올려놓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청년과 남선교회원들의 차이를 나게 했을까?

사실 힘으로 치자면 청년들이 훨씬 더 셀 것이고 숫자도 더 많았는데
청년들은 처음부터 '안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남선교회원들은 그런 일은 우선 큰소
리를 치면 된다는 사실을 인생의 경륜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난감처럼 쉽게 다루는 모발폰을 우리는 그저 받고 걸출만 안다고
해서, 들어도 모르는 용어에 겨우 이메일 정도만 사용할 줄 아는 컴퓨터라해서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얻을 수 없는 삶의 깊이와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여라....."(레위기 19:23).

엄마가 딸에게
안 뛰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조강하더구나
살이 찌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뛰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투박한 손이 되어서
그리고 그 손을 모아
기도하거라
그 손에 하나님도 감동하신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50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1 (시편 95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135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장현중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3:4-7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사랑은(4) "자랑도 교만도 참는 것"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90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10월의 신부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0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5	이재영	한상순	김영길, 신경화	권정호, 김홍구
12	장현중	한정옥	"10월의 신부"	김인원, 김종우
19	정덕수	강은미	우리는(2)	김종원, 권오걸
26	정희자	경덕현	권정호, 강현정	김종건, 김진근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6시

1. 교우소식

<기도부탁> 이선혜 성도(김경일 집사). 출산을 위해 14일(화) 입원 수술합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2. 봄맞이 3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둘째주간

<일시> 10월 6일(월)-25일(토) 오전 6시

표어: "나를 통해 자녀의 길에 복을 주소서"
"나를 통해 부모님이 행복하게 하소서"

*마오리교회 신부님과 몇분이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교회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생전 처음 해 보실 그 분들의 진지한 모습에 더욱 경건해지는 새벽입니다. 특별새벽기도회 둘째주간입니다

*새벽기도회에 부탁하실 기도제목이 있으시면 기도함에 넣어주십시오.

3.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특별새벽기도기간에 방학합니다

4. 수요예배 . 수요일 저녁 7:30

*오래전에 다른 교회 교인이라면서 걸려온 도전적인 전화 한통...

"목사님이죠? 수요예배를 꼭 나가야 한다는 성경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 성경에 없습니다/그럼 안나가도 되나요?/ 예. 아침 먹고 저녁식사 때까지 배가 안고프면 점심 안 드셔도 되듯이 안 나가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나가 보겠습니다"

◀착한 시인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용혜원-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 세상을 아름답게 할 일들이
많았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젊었을 때에는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더 많이 알아야 사람구실 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지성보다는 감성으로 사는게 행복한 줄 알게 됩니다.
어릴 때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TV를 보고 30여년을 고아 아닌 고아의 아픔을 겪었을 애기 엄마의 어깨선이 불쌍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눈 꼬리가 처져있어 착해 보이는 시인 교수의 우는 모습도 비쳐져서 또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는게 그게 그것 같은 생활일수록 송곳같은 지성미보다는 불세는 두레박 같은 감성이 그림습니다.